

P17. 농촌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마을테마 개발 사례

-군산, 산청 농촌전통테마마을을 대상으로-

김혜민*, 조순재, 나장원, 최혜성, 이부현¹⁾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¹⁾(주)EGtech

1. 서론

현재 국민의 여가활동 패턴변화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전통문화, 자연체험 기회제공의 장으로서 농촌이 재인식되고 있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농촌진흥청) 등 농촌지역 부존자원의 잠재서비스 개발·연출 및 농촌마을만이 가진 다양한 가치 발굴, 이를 자원으로 활용한 마을 활성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이때 농촌마을 부존자원의 다양한 부가가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자 공동체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농촌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으로서 농촌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유지, 개선, 보전하는 것은 21세기 새로운 농촌마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2003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된 2개 마을(군산 원주곡마을, 산청 남사마을)을 대상으로, 각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 및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을 통한 마을테마 및 개발방향 설정, 마을 브랜드, 테마체험 및 관광상품 개발 등 농촌마을 어메니티자원의 다양한 부가가치 개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및 결론

군산 원주곡마을은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에 위치한 마을로, 전체 55가구, 인구 130명이다. 청정한 자연환경, 마을 가득한 봄의 야생화, 왕골, 황금들판, 철새 등의 4계절 천연의 아름다움, 약 2백여 년 전부터 요석이라 하여 유명한 왕골 돛자리 등의 자원을 바탕으로 마을 테마를 설정하였다. 원주곡마을의 4계절 변하는 천연의 아름다움을 딸(정원)이라는 장소로 집약하여 “군산 딸아름마을”로 마을 이름과 테마를 설정하였다.

산청 남사마을은 경남 산청군 서남단의 지리산 중산리 입구에 위치하며, 전체 135가구, 인구 340명이다. 남사마을이 가지고 있는 전통고가와 담장, 옛 선인들의 발자취, 마을의 풍수와 자연경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마을의 한옥 건축물 중 가장 돋보이는 높은 담장을 뽑아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나타내었으며, 표면적으로는 “옛담 마을”이고 내면에는 “예절을 담는다”는 뜻을 가진 산청 “남사 禮담촌”으로 마을 이름을 명명하였다. 또 옛 선인들의 발자취와 향수를 느끼고자 하는 방문객들의 욕구를 통해 옛전통이 살아 있고 배움이 있는 휴식터로 남사에담촌의 테마를 설정하였다.